주병기 "大·中企 양극화 구조적 문제… 불공정 관행 근절"

〈공정거래위원장〉

중소기업人과 소통 간담회

大·中企 상생환경 조성에 역량 집중

金 "수출 1조 달러에도 양극화 심화"
朱 "재벌 친족 경영권 세습 청산"
문어발식 사업 확장도 끝내야"

업계, 乙 협상력 강화 입법 촉구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건의



공정거래위원장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앞줄 왼쪽 5번째)주병기 위원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우리 경제의 혁신과 지속 성장을 가로막는 구조적인 문제라는 인식하에 각종 불공정 거래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제도 도입, 강자의 시장력 견제, 약자 권익 보호 등을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들과의 소통 자리에서 "대중소기업이 상생하는 시장 환경이 만들어지도록 공정위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자리에는 중소기업계에선 김기문 중기앙회장을 비롯해 정광천 이노비즈협회장 등 중소기업 단체장,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주 위원장은 "우리 경제는 성장세 회복에도 불구하고 경기 회복의 온기가 국민 경제 전반으로 확대되지 못하는 구조적 딜레마에 빠져 있다"면서 "주력 수출 산업의 대기업과 그 대기업이 소속된 재벌 대기업 집단이 성장의 성과를 독차지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진단했다.

주 위원장의 이같은 인식은 중소기업계의 생각과 일맥상통한다.

김기문 회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우리나라가 미국, 중국, 독일에 이어 세계에서 4번째로 수출 1조 달러를 달성했다는 정말 자랑스럽고 반가운 뉴스가 들리지만 대중소기업간 양극화는 안타깝게도 더 심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지난 2분기에 대기업 영업이익률은 19%가 넘었지만 중소기업은 4분의 1 수준인 5% 정도에 그쳤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꼭 필요한 것이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협의요청권"이라고 덧붙였다.

중소기업계는 이날 주 위원장에게 ▲을의 협상력 제고를 위한 법령 제정 ▲온라인 플랫폼 거래공정화법 제정 ▲하도급대금 연동제 인센티브 확대 및 주요 원재료 합산기준 명확화 ▲하도급대금 지급 기한 단축 ▲불공정거래피해구제기금 도입 등 공정한 시장 생태계 조성을 위한 14건의 제도개선 건의과제를 전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 회장은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을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신속한 제도 개선을 당부하신 만큼 이 문제는 올해 안에 꼭 처리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써줬으면 한다"면서 "입점업체가 과도한 수수료 부담을 덜고 대금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 거래공정화법 제정에도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에 따르면 대기업 집단의 매출은 GDP의 90%에 가깝다. 대기업 집단의 울타리 안에서 이뤄지는 내부거래 비중도 GDP의 3분의 1정도다.

주 위원장은 "재벌 기업 집단이라는 작은 울타리를 걷어내고 국민 경제의 공급망을 키우는 건설적 과업에 나서야 할 때이고, 친족이 경영권을 세습하는 관행도 청산해야한다"면서 "주력 대기업과 연관성도 없고 경쟁력도 없는 업종으로까지 사업 범위를 넓히는 문어발식 확장 시대는 이제는 끝내야 한다. (대기업)계열사가 독차지하던 영역이 시장에 열리면 역량있는 중소기업이 협력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도 넓어진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가맹점 단체 등록제와 가맹본부의 협의 의무를 담은 개정 가맹사업법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또 지난8월부터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을 연료·전기 등 주요 에너지 비용으로 확대했다. 기술탈취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법원에 대한 공정위의 자료제출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마련해 내년 9월부터 시행한다. 가맹 분야에선 가맹점 단체 등록제와 가맹본부의 협의 의무를 담은 개정 가맹사업법이 내달 시행된다. 대규모 유통업자의 대금지급기한을 기존 60일에서 35일로 줄이는 개정 대규모유통업법도 내년 10월 시행이 예정돼 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글로벌 스타트업 축제 '컴업' 55개국 참여

내달 9~11일 코엑스서 역대 최대 규모
AI 비즈매칭 도입해 투자 연계 강화



'컴업2026'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이 만든 글로벌 스타트업 축제인 '컴업(COMEUP)'에 올해 55개국이 참여해 창업 생태계를 교류한다. 기조연설은 인터넷 강국인 에스토니아의 경제산업부 장관이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서울 마포 스타트업벤처 캠퍼스 서울(SVC)에서 '컴업 2026 미디어데이'를 열고 오는 12월9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서울 코엑스 C홀에서 열리는 글로벌 스타트업 축제인 '컴업(COMEUP) 2026'의 미래상과 개최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COMEUP은 국내외 스타트업 생태계 구성원이 한데 모여 소통하고 교류하는 대표적인 스타트업 축제다. 올해 핵심 주제는 '창업가의 발견과 성장'이며, 공식 표어는 '언리시 디 언신(Unleash the Unseen)'이다. 이는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우수한 창업가들이 컴업(COMEUP)을 계기로 세상 밖으로 나와 세계의 표준을 선도하는 대체 불가한 혁신가로 성장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에스토니아 리나 바흐트라스(Liina Vahtras) 경제산업부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에스토니아에서 스타트업과 정부를 오가며 쌓은 창업 분야 경험과 통찰을 공유할 예정이다. 우선 컴업 참여국이 지난해 46개국에서 55개국으로 늘고 총 463개의 스타트업, 대·중견기업, 기관 등이 전시에 참여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진다.

이와 함께 스타트업과 투자자 간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인공지능(AI) 비즈매칭(Biz Matching) 추천 체계를 도입하고 비즈매칭(Biz Matching)을 정밀매칭과 자율매칭으로 이원화해 운영한다.

중기부가 '모두의 창업'을 통해 일반 국민들의 창업 대중화를 이끈 만큼 일상 속의 창업가와 미래의 잠재적 창업가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로서의 성격을 대폭 강화했다. /김승호 기자

'올해의 상생기업대상' 유공자 포상

삼성D 장철웅 부사장 은탑훈장
상생협력 유공 정부포상 17점 수여

'2026 올해의 상생기업대상'에서 최고영예인 은탑산업훈장은 협력사 원자재 거래 규모를 7조원으로 늘리고 3000억원 규모의 상생펀드 운영과 120개 이상의 스마트공장 구축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에 기여한 삼성디스플레이 장철웅 부사장에게 돌아갔다.

동탑산업훈장은 4조원 규모의 상생결제 운영과 동반성장 종합지원체계 구축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지원한 한국서부발전 왕민석 실장이 수상했다.

산업포장은 1000개사 이상의 협력사 스마트공장 구축과 금융지원 등을 추진한 현대자동차 정희섭 상무가 받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동반성장위원회와 함께 26일 서울 코엑스 마곡에서 '2026 올해의 상생기업대상 기념식'을 열고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선 상생협력 유공자에게 산업훈장 2점, 산업포장 1점, 대통령표창 7점, 국무총리표창 7점 등 총 17점의 정부포상이 수여됐다.

대통령표창은 한국전력공사, KB금융지주,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중부발전 등 4개 단체와 포스코 이승기 상무, 메타튠 김재훈 대표, 한국지역난방공사 이동윤 부장이 각각 받았다.

'2026 올해의 상생기업대상'은 올해 동반성장주간 대표 행사로, 한성국 국무총리, 장인화 동반성장위원장,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 국회 및 경제단체 관계자, 포상 수상자 등 35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올해는 기념식을 국무총리 참석 행사로 격상하고 국민이 보다 쉽게 공감할 수 있도록 행사 명칭을 기존 '동반성장 유공 포상'에서 '올해의 상생기업대상'으로 변경했다. /김승호 기자

삼성전자서비스, AI 가전 서비스 역량 강화

서비스 기술경진·안전혁신대회 개최

삼성전자서비스가 인공지능(AI) 가전 확산에 대응해 엔지니어의 기술 역량 강화에 나섰다. AI를 기반으로 제품 간 연결성이 높아지면서 개별 제품의 수리뿐 아니라 여러 기기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서비스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삼성전자서비스는 경기도 수원 삼성전자 CS 아카데미에서 '서비스 기술경진 및 안전혁신대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로 31회째를 맞은 이번 대회는 지난 25일부터 이틀간 진행된다. AI 기술 확산에 따른 엔지니어의 전문성 강화와 서비스 현장의 안전문화 정착에 중점을 뒀다. 대회는 수리 경진 5개 종목과 서비스·안전 혁신 사례 경연 5개 종목 등 총 10개 종목으로 진행된다.

수리 경진은 냉장고·식기세척기 등 주방가전부터 세탁건조기, 로봇청소기, 에어컨, TV, 스마트폰 등 주요 제품군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참가 엔지니어들은 실제 고객 서비스 현장과 동일하게 구현된 환경에서 제품 점검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평가받는다.

특히 올해는 제품 간 연동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능력이 주요 평가 항목에 포함됐다.

이에 삼성전자서비스는 삼성전자의 사물인터넷(IoT) 플랫폼인 스마트싱스(SmartThings)와 연계한 AI 활용 능력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KCC, 자율주행 도장로봇 스마트건설 기술력 입증

KCC가 건설 현장의 작업 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꿀 로봇 기술로 인정을 받으며 스마트 건설 시장의 경쟁력을 입증했다.

KCC는 지난 25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6 스마트건설 EXPO' 시상식에서 '2026 스마트건설 챌린지' 최우수혁신상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5개 공공기관이 주관한 이번 대회에서 KCC는 자율주행 도장로봇 'SMART CANVAS(스마트 캔버스)'로 단지·주택 분야 1위를 차지하며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차지했다. /김승호 기자

에스원, 김송범 경영지원담당 부사장 승진

2027년 정기 임원인사 4명 발탁



에스원이 2027년 정기 임원인사를 통해 경영성과 창출과 미래사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인재를 발탁했다. 에스원은 김송범 경영지원담당 부사장(사진)을 비롯해 부사장 1명, 상무 3명 등 총 4명에 대한 승진인사를 단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인사에서는 각 사업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전문성과 리더십을 갖춘 인재를 승진시켰다. 특히 신규 시장 개척과 인공지능(AI)·로봇 등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사업 혁신을 이끌 인재를 중용했다.

김송범 신임 부사장은 1974년생으로 중앙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에서 경영학석사(MBA) 학위를 취득했다. 에스원 경영지원그룹장과 경영지원팀장을 거쳐 지난해 12월부터 경영지원담당을 맡고 있다. 상무 승진자에는 김광조 인사팀 인사지원그룹장, 백정우 연구개발(R&D)센터 통합솔루션팀장, 염대호 시큐리티사업부 시큐리티지원팀장이 이름을 올렸다. 백 신임 상무는 지능형센서랩장과 인프라R&D팀장을 역임했으며 염 신임 상무는 서울지원그룹장과 강원사업팀장 등을 거쳤다. /차현정 기자 hyeon@